

새로운 이정표 세운 사우회 발전 기금

두 달 새 역대 최대 40명 참여
1,360만 원 기탁



발전기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사우회 단합대회

- ◆ 일자: 2026년 5월 14일(목)
- ◆ 장소: 양주문화동산

연초 총회에 이어 사우회의 온기가 숫자로 증명됐다. 2019년 3월 사우회 발전 기금이 첫 발을 댄 이후, 최근 두 달 사이에 역대 가장 많은 사우인 40명이 참여했다.

사우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여 일 동안 모인 발전 기금은 이낙용 사우(보도)와 정홍보 사우(보도), 전영배(보도)사우가 각각 1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40명의 사우가 참여한 가운데 총 1,360만 원을 조성해 두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

이번 발전 기금은 특히 보도 부문 사우들이 다수 참여한 게 특징인데 이들 중에는 발전 기금 기탁에 처음 참여하는 사우들이 많아 저변이 한층 넓어진 점이 눈에 띈다.

사우회 발전 기금은 2019년 3월부터 발전기금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초기였던 2019년 5월에 25명이 참여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넘었고, 모금 금액에서도 의미 있는 확장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된 발전 기금은 2억 2천여만 원이다. (2면에 계속)

본사 소식

■ MBC, 2025 시청자평가지수 '전체 1위'...신뢰성·공정성에서도 1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전국 13세~69세 온라인패널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자평가지수를 조사한 결과 본사가 방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질적 우수성 등에서 평점 7.52점(11점 만점)을 얻어 지상파와 종편 전체 채널 중 1위에 올랐다.

■ 2026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6월 7일 개최
지난해 여의도와 광안리를 뜨겁게 달궜던 도심 레이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가 오는 6월 7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 주변에서 열려 참가자 전원에게 <무한도전>의 한정판 상품들이 담긴 레이스팩을 지급할 예정이다.

■ MBC, 고용노동부 'AI 캠퍼스' 운영기관 선정
본사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AI 캠퍼스'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실무형 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됐다. 모집 일정 등은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채널을 통해 추후 안내한다.

KidZania **MBC PLAYDE**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키자니아가 **딱**이다!

MBC 임직원 및 사우회 40% 할인

개인적으로 보면 차인태 사우회 고문이 3회에 걸쳐 1,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기탁했고, 이어 장명호 고문이 4회에 700만 원, 양영철 현 회장이 2회에 520만 원, 임무혁 이사가 3회에 500만

원, 박성제 전 사장이 4회에 400만 원을 각각 보냈다. 참여 횟수로는 석남수(기술) 사우가 12회로 가장 많았다.

사우회 발전 기금은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쌓여가는 과정이다. 이번 기록

은 사우들의 동료의식이 여전히 살아 있고, 어려울수록 연대감이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사무처 이종태 국장은 “기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경향이 있

지만 이번에는 처음 동참한 사우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회장단과 임원진의 노력에 사우들이 공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리: 편집장 윤영무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3월 9일 이후)

 이낙용(보도) 100만원	 정흥보(보도) 100만원	 전영배(보도) 100만원	 하영석(보도) 50만원	 이상열(보도) 50만원	 유희근(보도) 50만원	 박웅곤(관리) 50만원	 박순성(관리) 50만원	 조기양(보도) 50만원	 이상용(보도) 50만원
 송재우(보도) 50만원	 황 현(보도) 50만원	 고주룡(보도) 50만원	 김진호(보도) 30만원	 김중세(보도) 30만원	 정광수(기술) 30만원	 김규서(보도) 30만원	 천복용(기술) 30만원	 이상로(보도) 30만원	 양윤모(보도) 30만원
 조수원(보도) 30만원	 오태돈(보도) 30만원	 차상익(기술) 30만원	 익명(보도) 30만원	 이양길(보도) 20만원	 김부영(보도) 20만원	 전평국(보도) 20만원	 안재기(보도) 20만원	 김동한(보도) 20만원	 송기원(보도) 20만원
 이재훈(기술) 20만원	 익명(기술) 10만원	 추성춘(보도) 10만원	 심우승(편제) 10만원	 전재철(보도) 10만원	 신선희(편제) 10만원	 오문환(편제) 10만원	 류종현(보도) 10만원	 조중현(편제) 10만원	 윤길용(편제) 1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여든의 봄, 감자를 심다

월요산악회의 원당텃밭

선지해장국과 오리백숙,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여럿이 야외용 식탁을 들어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겨 놓고 점심 준비를 했다. 원당 시장통에서 제일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선지해장국과 오리백숙이 오늘의 메뉴다. 여기에 배다리 막걸리 한 사발, 반주로 곁들여지니 부러울 게 무엇이라! “역시 시장이 반찬이야!” 웃음이 터지고 잔들이 오간다.

공평하지 않게 흐르는 게 세월의 강일 터. 누군가는 먼저 길을 떠났지만 오늘 만큼은 카르페 디엠! 감자 캐 날을 앞당겨 손꼽아 보고 감자 선물을 할 이를 떠올린다. 삶이란 주고받는 마음들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일이니까.

농장 앞을 흐르는 실개천 둑 이곳저곳에서 올라오는 새싹이 보였다. 그 순간, 세월은 늙음을 데리고 오지만 감자의 계절과 함께 어김없이 봄을 불러들인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평균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진다는 월요산악회 소속 회원 12명이 지난 3월 23일 산으로 가는 대신 원당역에 모였다. 역에서 10분을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박종규 회원의 원당 텃밭 농장에서 감자를 심기 위해서다. 3년 전 박 회원이 감자를 심을 만한 땅을 내줘 시작되었는데 햇수로 네 번째다.

채를 묻혀 녹말 유출, 곰팡이 침입 막아

회원들은 채를 묻힌 씨감자 조각을 싹 눈이 위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잡고 흙을 덮어준다. 한 시간여 만에 네 이랑을 채웠다. 녀석들은 앞으로 90일 뒤 하지(夏至) 무렵이면 굵은 알을 줄줄이 매달고 흙을 밀며 올라오리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난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회원들은 오늘이 즐겁다. 서로를 곁에 두고, 하루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말이다. 오늘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으며 누가 앞으로 감자를 몇 번 더 심을 수 있겠다고 장담할까!



씨감자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 조심조심



작농 후 오가는 막걸리 한잔에 웃음꽃이 핀다



이화장(梨花莊)의 봄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화장

서울 낙산(駱山) 서쪽 자락에 자리한 이화장은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 국내 기반이나 재산이 없었던 이승만 박사가 돈암장에서 마포장으로 거처를 옮기며 체류할 때, 후원자들로부터 기증받은 부동산이다. 원래 3천 평이었으나 천 평을 팔고 지금은 2천 평 규모다. 1947년 10월부터 1948년 7월 경무대로 이전하기까지 1년 남짓 임시 관저처럼 사용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철쭉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왼편에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서 있고, 오른편으로 통일당(統一堂) 한옥, 그 위쪽으로 국무총리와 12부 장관의 초대 내각을 구상했다는 작은 한옥 별채인 조각당(組閣堂)이 있다.

그 아래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거처한 ‘c’자형 한옥 본채가 있다. 그런데 본채에서 겨울나기가 불편해 1980년대 중반쯤 2층 한옥-생활관을 새로 지었다. 이곳에서 1970년 하와이에서 영구 귀국한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1992년 타계할 때까지 양아들 이인수 박사(미 뉴욕대 정치학 박사, 명지대 법정대학 교수와 학장 역임) 부부와 함께 살았고 2023년 이인수 박사가 92세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자부(子婦)인 조혜자 여사가 살고 있다.

왕기가 서린 낙산에서 흘러 내린 암벽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말까지 본사 아나운서였던 문무일 사우(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지난달 13일, 사우회 양영철 회장 등 사무처 일행이 이곳을 방문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차인태 사우회 고문도 동행해 의미를 더했다.

문 사우의 안내를 받으면서 일행은

‘왕기가 서렸다’는 경사진 암벽 위에서 멈춰 잠시 아래를 보았다. 신록의 봄 미나리가 바위틈에서 졸졸 스며 나오는 물을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정원은 화려하지 않지만, 관목(灌木)과 잔디, 그리고 한옥이 어우러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손수 만들었다는 벤치형 하얀 의자가 한옥 추녀 밑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혜자 여사는 생활관에서 우리 일행을 맞아 차를 내왔다. 22년 동안 시어머니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곁에서 모신 내공일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맑은 얼굴이다.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 선물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구겨진 셀로판 포장지를 당신 무릎에 놓고 손으로 편편하게 펼치셨어요...” 시어머니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회상하며 여사는 말을 잊지 못했다.

1961년 고 이인수 박사는 하와이에 망명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대를 잇기 위해 문중의 결정에 따라 양자로 입적되어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할 때 곁을 지켰고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전 과정을 챙겼다. 그리고 학자로서 양부(養父)의 명예 회복과 기념 사업에 평생을 바쳤다. 이화여대 불문과 출신인 조여사는 스위스에서 신문사 특파원으로 활동할 때 현지 외교관의 중매로 만나 1968년에 결혼했다.

거실이건 방이건 세월이 스며든 크고 작은 액자 속 사진들의 친숙함...

낙산 둘레길을 걷다가 한 시대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곁을 느껴보고 싶으신 사우들께서는 문무일 사우에게 전화를 걸어 불 일이다.

문무일 010-5221-3060
이승만기념사업회 02-741-0815



초대내각을 구상한 조각당



통일당(統一堂) 한옥에서 사우회 방문기념촬영

경험이 AI로 더 깊어지다

제3차 AI 교육 성공리에 마무리

사우들을 대상으로 제3차 인공지능 교육 ‘AI, 나도 할 수 있다’가 지난달 6일부터 16일 사이에 4회에 걸쳐 마무리되었다. 김용조 강사가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당초 40여 명에 가까운 사우들이 신청했으나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일부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30여 명이 이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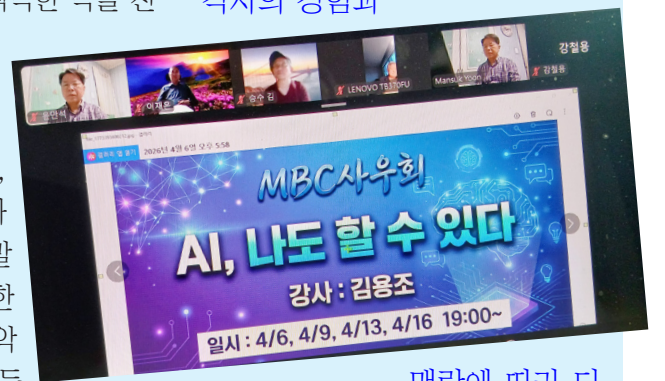
이번 교육 역시 1차와 2차에 이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쓰기의 기초에서부터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 작사·작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AI 활용 능력을 익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안주희 사우는 “AI 도움을 받아 작곡한 곡을 친지들에게 들려주니 모두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다. 또한, 강철용 사우는 “각자의 의견을 모아 노랫말을 만들고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3분짜리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자”라는 제안도 했다.

사우회의 인공지능 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노년층의 새로운 학습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철학 전공자들이 인

공지능 관련 대기업의 최고위 경영진으로 활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올해 대학 입시에서 철학과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 지식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고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일부 사우들은 오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똑같은 도구와 문제를 주더라도 각자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다.

사우회가 지난해부터 AI교육을 지속하는 목적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통찰과 가치 창출로 사우들의 인생 후반부를 한층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오늘의 캘리

“人香萬里(인향만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면 사라지고
향기는 십 리도 못간다.
그러나 사람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는 선행은
만 리에 전달되고
오랜 세월 알려져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

유희근(보도) 사우의 글씨



INTERVIEW

앞치마를 두른 박성제의 인생그림

그는 어째서 정치의 길보다 힘겹다는 자영업을 선택한 걸까?

북카페를 연 박성제(전 MBC사장)

서울 한복판, 청계천이 흐르는 청계2가 삼일빌딩 바로 뒤의 건물. 그 건물 3층에서 북카페 '오티움'을 운영하는 박성제 전 MBC사장(이하 그)은 정치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문에 의하면 사장 연임에 실패하자 정치권은 그에게 바로 손을 내밀었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호출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정치권에서 그를 원했고 그것도 '1순위'였다. 공영방송 사장을 지낸,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카드였다. 이미 많은 선배가 그 길을 택했으니, 그도 따르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와 전혀 다른 길을 떠올렸다. 음악과 LP, 그리고 오디오. 그가 오래도록 좋아해 온 것들이었다. 한때는 LP 바를 구상했다. 잘 해낼 자신도 있었다. 인맥도, 콘텐츠도 충분했다. 그렇게 살면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서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사람들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제동을 걸었다. 공영방송 사장 출신이 '술장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였다. 무엇보다 저녁에 문을 열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활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컸다. 서촌에서 북카페 운영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 아내는 그 대신 북카페를 제안했다.

청계천 물소리가 들리는 북카페 '오티움'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로 나와 400미터쯤 걸었을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권의 책들이 유리창 가에 길게 설치된 2중 선반 위에 차곡차곡 꽂혀있다. 그리고 키 낮은 책상 위에도 보기 좋게 정렬되어 있다. 오픈 주방 앞으로 테이블이 20여 개가 있으며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스피커가 TV 양옆에 작은 장승처럼 서서 무대를 지키고 있다. 옆에는 유리 칸막이로 구획된 방이 있다. 한눈에 봐도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그가 웃으며 맞았다. 콧수염과 턱수염을 단정하게 기른 그는 본사 사장 시절의 긴장감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었다. 뚱뚱했던 몸이 날씬해졌다.

"카페를 하면서 16~17kg을 빼어요. 혈압, 당수치도 좋아졌고요..."

웃는 그의 말끝은 스스로 만든 변화를 즐기는 듯했다. "놀랍네! 카페 영업이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저는 화, 목, 토 3일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아내가 나와요. 비번인 날은 저는 남산을 뛰거나 계단을 오르고, 속보로 한강 코스를 걷습니다. 그런 다음 헬스장에 나가서... 그렇게 1년 넘게 했더니 체중이 빠졌어요" 매일 저녁 약속이 잡혀있던 본사 사장 시절, 사람을 만나고 잔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며 쌓인 시간은 고스란히 몸으로 내려앉아 체중이 세 자리 숫자로 불었으나 지금은 두 자리로 떨어졌다.

우리(필자와 이석일 사우)의 궁금증은 자영업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북카페를 운영할 생각을 했느냐? 는 것이었다. 북카페의 위치가 3층이고 크기가 40평인데 월세는 500만 원, 알바 직원(아내가 채용한 중년 여성) 한 명이

있고 그와 아내가 교대로 근무한다. 손님은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30~40명, 오후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다수, 저녁에는 술과 간단한 안주를 팔며, 주로 북토크 모임 등 단체 손님들이 이용한다. 본사 출신 선배들이나, 출판사 사람들이 자주 오고, 유명 정치인들의 북콘서트도 열어준다.

이와 함께 그는 '음악 감상회' '왕초보

비용 사이클 흐르는 수익의 흐름-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2012년 여름이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공방(工房)의 문을 두드렸다. 복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였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소목장(小木匠)의 손끝 감각을 익히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곧 연락이 올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흘러간 시간이 5년 반이나 되었지만 복직은 성사되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는 공방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일로 시선을 돌렸다. 중학교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오디오. 스스로 설계도를 그리고, 부품을 고르고, 소리를 다듬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쿠르베, Courbé」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다. 한 대에 1,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80세트가 오디오 애호가들에게 팔려나갔다. 숫자로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 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린 시간이 켜켜이 담겼다.

그가 쿠르베를 경영하며 알게 된 사업이란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쌍칼날 위를 걷는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한순간 헛디디면 베이고 만다. 무엇보다 이익을 붙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시작도 오래갈 수 없었다. "그런 작은 경영 노하우가..." 그가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다가 이었다. "본사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됐고, 지금 북카페를 꾸려가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가게를 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책, 음악, 휴식의 감성공간 북카페 '오티움' 내부

클래식'과 같은 유료 강의를 진행하고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역임한 아내는 책 소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매출이 월 2천만 원은 돼야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근처 호프집, 식당 등 가게 절반이 문을 닫았거나 간판이 바뀌었어요" 라고 바깥 경기가 안 좋다고 예들려 말했다. 이 때문에 2024년 3월에 문을 연 그의 북카페는 이달로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노포 소리를 듣는다는 거였다.

사업은 쌍 칼날 위를 걷는 위태로운 균형, 헛디디면 베인다

실제로 그는 장사의 감각-매출과

스피커 홍보물을 손에 쥐고 용산 전자상가에 갈 때마다 잡상인 취급을 받았노라고 그는 말했다. 누군가는 그를 힐끗 보았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외면했다. “직장이 정글이라면, 사회는 지옥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가 말했다. 정말이다. 사업이란 매일 부딪히고, 거절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보기에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는-대기업 부장을 했을 듯한-남자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팔고 있었다. 자기도 잡상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으로 두 개를 사주었다. 남자가 그의 얼굴을 다시 보더니 물었다. “혹시... 박성제 기자 아니신가요?” “..... 맞습니다만”, “해고당하신 거 압니다. 응원합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그날 처음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쯤에서 “사업이나 장사보다 차라리 정치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다. “공영방송 MBC, KBS 사장을 한 사람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쪽 진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돌린 그가 말했다. “MBC

사장을 하더니 결국 그런 거였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공영방송 사장 출신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치를 하면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단 시작하면 재선, 3선... 계속 도전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아침저녁으로 뛰어다녀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제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치의 소용돌이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며 책을 쓰는 어느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귀띔했다.

그를 보고 있노라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월터 크롱카이트 (Walter Cronkite, 1916~2009) 앵커가 떠오른다. 대통령의 말보다 영향력이 컸던 크롱카이트는 “정치에 입문하면 평생 몸담아 온 기자로서의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원의원과 부통령 출마 제안을 거절했다. “기자의 일을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크롱카이트의 신념이나 “공영방송 사장 출신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그의 가치관은 같은 선상에 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박사장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그 또한 다른 자영업자와 같이 손님이 넘치는 카페를 꿈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빚어낸 오디오의 울림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고 싶어 할 것이다. 좌우에 세 개씩, 여섯 개의 스피커가 폭포처럼 쏟아내는 웅장한 음향이 북카페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이, 울림이 머무는 수백 권의 책들은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책들을 훑어보던 내게 그가 책 한 권을 불쑥 내밀었다.

“선배, 제가 쓴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제목이 『어찌다보니 그러다보니』. 그가 낸 3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다. 해고에서부터 오디오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역경을 다뤘다. 표지 뒷장에 그가 소개되어 있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일본 출장에서 사다 준 소니 워크맨을 통해 처음 ‘소리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거리의 합성 대신 이어폰 속 음악을 택했고, 이후 MBC에 입사해 한때는 골프와 술을 즐기던 ‘한량 기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그를 노조위원장 자리로 이끌었고, 결국 2012년 파업의 한가운데서 해직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청계천에서 이어지는 반가운 만남

그리고 그는 본사의 사장을 거쳐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아닌, 스스로 빚어낸 스피

커를 손에 들고서. 그의 걸음은 우연과 선택이 뒤엉킨 듯 보인다. 하지만 모든 길은 소리를 향해 일관되게 그리고 곧게 이어져 있다. 그의 책 표지에 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한 번 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잘되든 못되든 모두 내 책임이다”라는 고백은 흔들림 없이 한 방향을 지향한 자신의 궤적을 압축한 것이리라.

사장 시절 사우회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온 그는 이제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서 다시 사우회 걸음으로 다가서고 싶어 했다. “사우회요? 선배들과 식사도 하고 산도 함께 오르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엔 환갑이거든요. 내년부터 저도 사우회 일원으로 참여하려고요”. 혹시 사우들께서 청계천에 갈 일이 있다면, 후배의 얼굴도 볼 겸 북카페 ‘오티움’에 들러 보시라.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생생한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확실한 환희의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오디오로 손님이 넘치는 카페를 꿈꾼다

사진촬영: 이석일 사우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빛으로 기록한 일곱 권의 사인첩

김태홍(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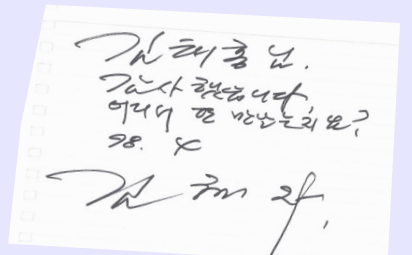
드라마를 녹화하는 마지막 날이면 나는 늘 한 걸음 물러서 또 다른 준비를 했다. 카메라가 꺼지고, 감독의 “컷”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분장을 지우기 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라고 말을 건넸다. 그 짧은 눈빛, 말끝의 떨림, 현장을 감싸던 묘한 정적. 나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붙잡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다. 조명감독이었던 나는 마지막 녹화 날마다 배우들에게 사인을 받았다. 입사 16년 차인 1998년부터 2019년 은퇴할 때까지 한 장, 한 장 쌓인 기록은 어느새 일곱 권의 사인첩이 되었다. 55편의 드라마, 460명의 배우. 톱스타로부터 이제는 더 만날 수 없는 얼굴들까지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숨 쉬고 있다. 종이 위의 잉크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다. 주름진 하루하루 씨앗을 지켜내고 둥그렇게 결을 이룬 누런 가을 호박처럼 한 시대의 감정과 열기를 보듬은 MBC 드라마, 아니 K-드라마의 산 역사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흔히 배우를 기억한다.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얼굴들, 대사를 통해 삶을 건네는 이들. 그러나 그들의 빛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이름은 오래 머물지 않는

다. 조명은 장면이 끝나면 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빛이 대신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배우를 오래 바라보았다. 얼굴의 그림자 하나, 눈빛의 깊이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드라마란 단지 방송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살아 있는 기억임을.

나는 비록 현장을 떠났지만, 나의 사인첩 속 배우들이 다시 화면에서 살아나듯, 내가 비추던 빛 또한, 언제든지 다시 켜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일곱 권의 사인첩. 이것들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다. 사라지는 순간을 붙잡아 영원으로 건너가게 한 기록이다. 누군가는 그저 지나간 드라마라 말하겠지만, 내겐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이 기록을 들여다보는 나는 문득 요즘 MBC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된다. “드라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고



460명의 사인 가운 하나인 김태홍씨의 글씨

/회/원/동/정/

'영상 80회'오찬모임

'영상 80회'모임 회원 10명은 지난 3월 20일, 정기적인 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 날 미국에 살다가 모친상을 당해 한국에 온 김광택 회원과 가족 행사차 미국에서 한국에 온 이수향 회원을 맞아 시내 모처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모두스' 창단식 참석

양영철 사우회장은 지난 3월 12일, 본사 골든 마우스 홀에서 열린 장애인 오케스트라 '모두스' 창단식에 참석했다. 안형준 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심미선 시청자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방위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IIILA(국제문학예술연구소) 펠로우 선정

황선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명예회장은 지난 3월 4일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문학예술연구소(IIILA)의 펠로우로 선정돼 앞으로 지원 응모 작품 심사, 정책 자문 등을 맡는다.



BJC 춘계 역사 문화기행

조기양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전 MBC스포츠 대표이사)은 지난달 28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BJC 춘계 역사 문화탐방'을 했다. 강화도의 역사현장과 김포의 평화 생태 길을 함께 걸으면서 평화와 자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상준(편제)
3월 27일 별세
향년 82세
1969년 미술부 입사
제작본부 미술2팀장



권혁준(편제)
4월 21일 별세
향년 85세
1973년 미술부 입사
보도미술부장
강남바독살롱 운영



이태림(업무)
4월 12일 별세
향년 93세
1969년 업무직 경력
춘천MBC,부산MBC 사장
썬코마코 대표
사우회 창립 발기위원



신명수(기술)
3월 29일 별세
향년 77세
1967년 시설부 입사
송출기술부
TV중계부 근무
영도비앤씨 대표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김상수(보도)
1991년 영상편집팀 입사
뉴스 아카이브 업무
2026년 정년퇴직



김상호(보도)
1995년 영상디자인직 입사
보도본부 뉴스디자인
2026년 정년퇴직



안중남(편제)
1991년 영상카메라 입사
제작카메라 업무
영상센터장
2025년 정년퇴직
한예중 겸임교수



이훈표(업무)
1977년 업무직 입사
라디오 광고 영업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직
1994년 연합통신 광고담당

경조사항

- 구 수: 이정오(관리) 37.06.11 형진한(보도) 37.07.14
- 팔 수: 김현동(편제) 47.05.18. 김규서(보도) 47.06.04. 정광조(관리) 47.06.15.
- 장두문(편제) 47.06.23. 김종오(보도) 47.06.23. 박순성(관리) 47.07.07.
- 김충식(ANN) 47.07.14.
- 고 희: 김도원(보도) 57.05.22. 이병로(관리) 57.05.30. 심원택(보도) 57.06.09.
- 성경섭(보도) 57.06.09. 우대희(보도) 57.06.11. 김종남(기술) 57.06.17.
- 이희재(편제) 57.06.24. 이여춘(편제) 57.07.06. 이홍철(기술) 57.07.06.
- 김정욱(편제) 57.07.08. 전연식(편제) 57.07.11. 정운현(편제) 57.07.14.
- 결 혼: 남정우(기술) 딸 05/03 조정선(편제) 아들 05/09 강태선(기술) 딸 05/09
- 김영일(보도/55년생) 아들 05/16 채애림(관리) 아들 5/17
- 부 음: 이우용(편제) 장모상 03/12 이영호(대구) 장모상 03/17 송기남(관리) 모친상 03/19
- 박용홍(관리) 모친상 03/28 이종숙(관리) 모친상 05/01

연회비

- 평생회비: 김상수(보도) 김상호(보도) 안중남(편제) 이훈표(업무)
- 2025년: 추성춘(보도)

- 2026년: 강현식(편제) 김동한(보도) 반주원(ANN) 이명순(ANN)
- 서은선(ANN) 이인숙(ANN) 안주희(ANN) 박민정(ANN)
- 최운형(ANN) 박효연(ANN) 안종순(ANN) 김선희(ANN)
- 최화숙(ANN) 남궁미(ANN) 황효성(관리) 김종창(편제)
- 이재명(기술)

주소변경/신규

- 편제 김창제 경기 군포시 수리산로 102 (산본동, 설악아파트)
- 안중남 서울 은평구 역말로 123-4 (대조동)
- 김동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 보도 박태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300 (수색동, DMC롯데캐슬더퍼스트)
- 김상수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 김상호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80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 관리 심홍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10 (행신동, 무원마을5단지아파트)
- 송호섭 서울 동작구 상도로13나길 37 (상도동, 동도빌라)
- 업무 이화옥 경기 김포시 장릉로 56 (풍무동, 김포길훈아파트)
- 이훈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24번길 8-7 (토당동, J&캐슬)

MBC사우회
협약업체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네오블루매 플라워(박건미 대표) 010-3343-8973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JC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신대근(보도)

신대근 사우(전 사우회 부회장)는 7년 전 폐암 수술을 받은 가족을 하루하루 간병하는 경험과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을 통해 노년 건강의 새로운 시각을 접했다. 그리고 많은 현역 의료진으로부터 얻은 조언을 스스로 검증해 왔다. 그의 글을 읽는다.

80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QOL)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시기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 일본의 노년 의학자, 와다 히데키는 사후 부검 통계를 제시하면서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누구나 암이나 치매의 징후를 몸속에 지니고 살아간다고 《80세

병과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라!

의 벽》이란 책에서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80대 노년의 질병은 싸워 이겨야 할 적군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동행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젊은 시절의 건강 기준에 얽매어 각종 검사 수치의 노예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혈압이나 혈당을 기준에 맞춘다고 억지로 낮추다 보면 오히려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조금 높은 수치라 할지라도 본인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적합한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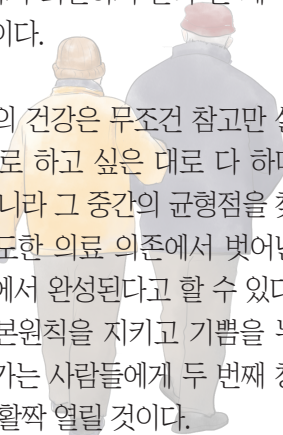
을 인지하고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90대 초반의 이시형 박사는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먹지는 못할지언정 가끔 고기나 생선을 섭취해 단백질을 보충하고, 햇볕을 쬐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잃어버린 신체 능력에 대한 상실감보다는 산책이나 독서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80세의 벽을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정서적 해방감을 의학적 방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석을혜 스마일 영상학과와 원장과 서상렬 내과 원장은 “혈관 건강 상태에 따른 수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병력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없이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암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삶의 질을 파괴하는 극심한 통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치료나 완화의료까지 외면하지 말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결국 80대의 건강은 무조건 참고만 살거나, 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과도한 의료 의존에서 벗어난 주체적 삶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청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넘어지고 나서야 쓰게 되었습니다

김승일(편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귀 수술받지 마세요. 나도 귀가 안 좋지만 그냥 살아요.” 지인이 전화까지 걸어 수술을 말했다. 작년 3월 낙상사고 후유증으로 중이(中耳)의 작은 뼈가 탈골돼 왼쪽 귀로 듣지 못했다. 뇌에 가까운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수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손이 귀 뒤로 가곤 했다. 다른 분은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하기로 했다. 눈도 시원치 않은데, 귀까지 막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은 생각보다 잘 되었다. 귀 뒤를 절개한다고 해서 옆머리를 밀고 전신마취까지 한 뒤, 고막을 찢히고 귓속을 통해 수술하는 방식이었다. 2.5밀리 작은 티타늄 하나를 얹어놓자, 막혀 있던 소리가 다시 들어왔다.

사고는 사우회보 취재를 하다가 일어났다. 아산에서 뒤로 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제시간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균형이 흔들렸고, 기억도 흐릿했다. 6인실 병실에서 간병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다. 저녁을 먹고 누우면 잠이 들었다. 새벽 두 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어둠 속에서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가 제일 길었다. 견디다 못해 스마트폰을 켜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타가 계속 났다. 그래도 그냥 썼다. 그 글을 일 년 전에 열어두고 방치했던 글

쓰기 전용 블로그 ‘브런치’에 올렸다.

이틀이 지나고부터 하루에 한 편씩 올렸다. 새벽 두 시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쓰면 한 편이 나왔다. 낮에는 다음에 쓸 이야기를 떠올렸다. 병상에서 겪는 일뿐 아니라,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도 곁들였다. 글을 올리고 반응을 살피고, 다음 글을 생각하다 보면 아픔도 시름도 조금씩 멀어졌다. 주치의는 인지 회복에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격려했다. 친구는 글이 좋아졌다며 등을 떠밀었다. 어느새 글쓰기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42일의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퇴원 후에도 글쓰기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병상에 누우니 보이네’라는 이름으로 브런치에 연재를 시작했다. 그것이 ‘세월 가니 보이네’로 이어졌다. 작년 말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네’도 연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새 글은 160여 편이 쌓였다. 구독자도 삼백 명을 넘어섰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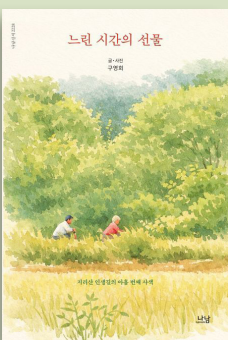
돌이켜보니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던 일은 MBC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가능했다. 이제 혼자 힘으로 글을 쓰다 보니 그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독자들을 끌어모으고 주인공을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글감이 되어 되살아나고 있으니, 또한 고마운 일이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낙상에 따른 경막하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나는 그사이 글쓰기를 만났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사우가 있으신가?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도 붙잡아 보시라! 관해드리고 싶다.

저 또한, 늦게 시작한 글쓰기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느린 시간의 선물』 구영회 사우의 아홉 번째 사색

시간안내



구영회 사우의 아홉 번째 책 《느린 시간의 선물》은 50여 편의 에피소드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단막극처럼 펼쳐진다. 소박한 이야기와 맛깔스러운 문장의 여운이 오래 남는다. 또한, 자연의 시간과 공간적 평온함을 담아 저자가 직접 찍은 책 속의 모든 사진은 독자들로 하여금 눈을 떨 수 없게 만든다. 자연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다른 사람의 삶에 조용히 영향을 끼치는 페이지터너(page Turner)다.

정동레터

- ♥ 사우회장의 끈질긴 메시지 독려도 한몫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조용히 발동 거는 MBC 체질, 사우회를 흥분 적신 발진 기금! 살아있네^^
- ♥ 용기 없으면 내비도 못 찍는다는데.. 정치 대신 북카페라니, 박수 대신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리 멋진 일인가!
- ♥ 제대로 알기 전의 비판은 가벼운 것, 구겨진 셀로판지를 재활용할 이 누군가? 이화장을 둘러보고 깨달은 게 있다면 알아갈수록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 ♥ 9권째의 책, 글쓰기는 체력전인데,, 지리산 원기소를 드셨나, 화 널 상대를 만나도 오히려 기도해 주고, 보이는 건 모두 글감이라... 이쯤 되면 유유자적이나 아니라 '항시 집필 중'
- ♥ 사우회보의 **오탈자**를 찾아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주는 이벤트는 쭉-욱 계속됩니다. 94호 경조사 란에 혼주 차상익을 차익상으로 입력하는 대참사 발생. 차상익님 죄송합니다ㅠ...이를 처음 발견하신 김태홍 사우께는 커피 쿠폰 출발!

편집부

역대급 밥도둑 등장?! 업그레이드된 손맛 예고!
서해의 밥도둑을 찾아, 전북 부안으로 달린다!

밥도둑 잡으러 왔습니다!

MBC의 세 번째 지역 재생 프로젝트

시골마을
이장우3

매주 수요일 밤 9시

